

# 수능 끝...엄마, 나 문화예술 여행 갈래!



국립광주박물관, 광주독립영화관 등이 수능이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료 할인 이벤트 등을 펼친다. 국립광주박물관 '벌룬 서커스' 공연 장면. <국립광주박물관 제공>

국립광주박물관, 국악비보이·서커스 등 내달 2~6일 선착순 무료 광주예술의전당, 젊은국악인들이 펼치는 '해방감' 오늘 공연마루 광주독립영화관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무료상영' 등 풍성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5일 마무리됐다. 그동안 쌓인 학업 스트레스를 문화 행사, 공연, 영화관람 등으로 해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올해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국립광주박물관 '수험생은 자유예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최흥선)은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수험생은 자유예요!' 행사를 기획했다.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진행할 예정이며 무료 진행. (11월 15-21일 선착순 신청, 학급 담임교사가 신청)

먼저 한국적 정취를 담아내는 독특한 비보잉과 LED 불빛을 결합한 '국악비보이+LED 쇼'가 펼쳐진다. 이어 풍선과 자이언트 짐벌 등을 활용해 다양한 모티프를 선보이는 '벌룬 서커스', 마임과 코믹 요소를 통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전하는 '뽀뽀의 코믹마임'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국립광주박물관 박혜영 담당은 "이외에도 희망

의 메시지를 담은 포춘퀴 이벤트, 전시관 보물창기 등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며 "이번 행사를 즐기며 수험생들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공연, 행사를 통해 모두 날려버렸으면 한다"고 했다.

◇'해방감' 주제로 젊은 국악인 공연...수험생에게 '카타르시스'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운영권)은 광주상설공연 일환으로 '젊은국악 K-stage'를 15일 오후 7시 광주공연마루에서 선보인다. 젊은 지역 국악인들이 모여 '욕망의 발현'과 '해방감' 등을 주제로 우리 소리의 신명과 흥을 펼친다.

먼저 금기와 욕망 사이에서 몸부림치는 춤 '번뇌'를 볼 수 있다. 종교의 교리를 위반하며 욕구와 욕망을 드러내는 주제를 극적으로 구성한 작품이며 무용에 장인회.

인간의 죽음이나 공포를 이겨내는 법을 춤사위에 담은 가무와 레퍼토리 '살, 나'도 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곡 '미스터리



영화 '관찰아 엘리스'



지난 뉴비스테이지 공연 장면. <광주상설공연 제공>

Mystery'도 올려 퍼진다.

업사이클링 타악기와 장단이 어우러진 '퍼커션 팩토리 TONO'는 '응원예술'로 관객들을 응원한다. 타악 연주자 김누리가 주축이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가, 시민에게 신명나는 장단으로 '원기'를 불어 넣는다.

예술감독 및 사회는 김상연이 맡았으며 타악에 김민철 등이 출연한다. 이외 유세운(아쟁), 정은호(소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영화 힐링'... 광주독립영화관 수험생 할인 이벤트 =광주독립영화관은 고생한 수험생들을 위해 연말(오는 12월 31일)까지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 본인을 대상으로 현장 예매 시 5000원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2025년 수능 수험표 지참 필수) 할인은 현장 예매 시에만 적용된다.

현재 광주독립영화관에서는 15일 '되살아나는 목소리'를 비롯해 '폭설' 등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같은날 오후 5시 '2024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 무료상영회'와 영화 '공작서 GV(관객과의 만남)' 행사도 예정돼 있다.

16일 '럭키, 아파트', '최소한의 선의', '되살아나는 목소리', '관찰아 엘리스' 등이 스크린에 걸린다. 그중 '관찰아 엘리스'는 성적에 대한 압박과 부모와의 갈등, 교육관계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이 교실을 벗어나 1년간 자신을 탐색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어 17일 관객들을 찾아오는 '북킹포', '연소일기', '우리는 천국에 갈 순 없지만 사랑은 할 수 있겠지'도 이목을 끈다.

20일에는 동시 개봉하는 세 작품이 수험생을 맞이한다. 설수안 작 '씨앗의 시간', 남녀 주인공들의 재회담을 그린 '미망', 위장결혼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두 가족 이야기 '한 채' 등이 저마다 메시지를 전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간혀진 서사:

### 광주서 필리핀 바콜로드까지

김호빈·브랜든 브라자 공동 작업 오버랩, 오늘까지 창작물 전시 오후 4시 작가와 토크시간도



간혀진 서사: 광주에서 바콜로드까지' 전시 장면. <오버랩 제공>

다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예술을 매개로 동시대성과 소통을 넓혀가는 전시를 열고 있다.

광주와 필리핀 바콜로드 작가가 공동체의 관심사를 주제로 작품을 공동으로 창작한 것. 주인공은 김호빈 작가와 브랜든 브라자 작가로 이들은 지난 8월부터 작품 창작을 해왔다.

오버랩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독립 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이 광주와 바콜로드 지역을 오가며 교환 레지던시를 비롯해 워크숍 등을 매개로 협업을 진행해온 결과물이기도 하다. 1대1 매칭을 통해 두 지역 예술가가 작품을 창작했다.

'간혀진 서사: 광주에서 바콜로드까지'라는 주제가 말해주듯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작품으로 구현됐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김호빈 작가는 문학을 토대로 다채로운 시각 매체를 활용한 작품을 연구해왔다. 필리핀 네그로 출신 브랜든 브라자는 평면을 비롯해 설치와 같은 실험적 작품을 제작해왔다.

이번 전시는 상자 안에 담긴 영상이나 설치 작품을 초점화했다. '간혀진 서사'라는 주제에 수렴되는 의미는 공동체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관

계와 소통, 정체성의 문제를 환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버랩은 "이번 전시는 공동체 내에서 서로 다른 지향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절 또는 정체성의 문제를 예술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오늘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이슈를 사유해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고 전했다.

한편 두 예술가의 협업 과정 등을 듣는 아티스트 토크가 1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사물에 대한 다른 관점...새로운 상상을 낳다

ACC, 오늘 연극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사사로운 사서' 무대

형통 또는 학문 등의 계통을 탐색하는 학문을 계보화이라 한다. 미셸 푸코는 계보학적 방법을 매개로 주제관계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오늘날 예술과 문화에서 계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된다. 특히 공연 등에서 관객과 사물과의 관계를 해석하는 '사물의 계보'는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을 내재한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두 연극이 관객을 찾아온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아시아콘텐츠 공연개발 사업으로 제작된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와 '사사로운 사서'가 그것.

먼저 '어디로나 흐르는 광주' 전자는 실험적으로 '대립의 일치'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광주를 이야기

한다. 창조와 종말에 관한 모티브를 전지창조 일주간의 시간으로 훑어보는 작품이다. 대사 없이 오브제와 퍼포머의 동작으로 메시지와 의미가 전달된다는 데 특징이 있다. 15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 극장1.

올해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을 수상한 적극이 연출했으며 사물, 연기자, 무대, 관객의 관계를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풀어낸다.

낭독극 '사사로운 사서'는 도시 어느 공공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뤘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던 날 도서관은 사소한 누수가 있을 뿐 평온하다. 사서들은 새로 입고된 책을 정리하고 예약한 책을 찾아준다. 오후 늦게 출근한 시인이 보존서고로 들어가는데 순간 물이 들어차면서 침수가 된다.



'2023 DAC 아티스트'로 선정된 바 있는 강현주 연출을 맡았으며 세밀한 사실주의적 무대가 기대된다. 15일 오후 8시 ACC 아틀리에1.

두 작품 입장료 무료, ACC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물로 바위를 뚫듯...가야금 성유미의 '예술 노정'

16일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

산에서 흐르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산류천석(山流穿石)'은 꾸준한 노력이 선행해야 무언가 성취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녹록지 않은 거문고 외길을 걷고 있는 성유미 연주자가 자신의 예술 노정을 빚낸 표현이기도 하다.

가야금 주자 성유미가 제2회 거문고 독주회 '산류천석'을 오는 16일 오후 3시 광주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펼친다.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전남대 출신

작곡가들과 협업한 창작 초연곡 다섯 편을 선보이는 자리다.

공연은 바들가지의 노래라는 부제를 지닌 곡 '유지'로 막을 올린다. 작곡가 박상민에 따르면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을 찰랑거리는 버드나무 가지에 투영, 피아노 선율과 단단한 거문고 음색을 교차한 노래다.

장구와 거문고의 무수한 타점으로 이뤄져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느낌을 연상시키는 위촉초연곡 '산류천석'도 올려 퍼진다. 이어지는 '달을 쏘다'는 운동



무료 공연(전석 초대).

주 시를 모티브로 김준연 작곡가가 멜로디를 입혔다. 박상민의 '낙화'도 거문고 선율로 구현된다. 꽃의 여린 자태와 북의 절제된 리듬이 랩과 특유의 긴장과 이완 관계를 이루며 감정을 고조시킨다.

/최류빈 기자 rubi@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b>062) 227-9940</b>
		<b>062) 227-9970</b>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b>02) 765-9940</b>
순천점	중앙시장 앞	<b>061) 752-9940</b>